우리문화

2011.02 Vol. 223 February

문화 비전 선언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빠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 ·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11년
대한민국 228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2011. 02 Vol. 223 February

Contents

등록번호 서울라 12184 | **발행** 한국문화원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cf.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 · 편집인** 최종수 | **편집위원** 곽효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종(광주광역시 지회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춘섭(성남문화원장) | **편집팀장** 문선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인크 02)332-7924 | **인쇄** 태양 씨엔피 02)2268-2111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정가 3,000원

02 연합회 소식 — 한국문화원연합회 50차 총회
04 익스큐즈미, 문화원 — 부산의 영도문화원
08 2011 문화정책 대국민 업무보고
10 만 남 — 페컴도서관에서 온 편지
12 문화원 엿보기 — 동해문화원 논골담길
18 그들만의 저녁식탁 — 경기 북부지역, 국장을 만나다.
24 문화원 book book
26 문화원 돋보기
30 연합회 레이더 — 우리 문화 소식
32 — 원장 동정

한국 문화원 연합회 50차 총회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난 1월 28일(금)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 50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해 지방문화원장 161명, 한국문화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병석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송병호 지역문화과장 하창환 합천군수가 참석하였다.

정정희 충남지회장(당진문화원장)의 문화비전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인사말이 있었다.

최종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적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말하면서 지역문화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을 더욱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병석 국회의원과 송병호 지역문화과장의 격려사 후 이병석 국회의원, 염돈호 강릉문화원장에게 감사패 및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이어 김중만 사진작가를 한국문화원연합회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하창환 합천군수는 2011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 홍보와 함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제1호 의안으로 201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의 건, 제2호 의안으로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의 건, 제3호 의안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 임원선임관리규정(안) 제정의 건, 기타사항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각각 상정하여 원안대로 승인받았다.

부산, 영도문화원

영도문화원에서의 수다

각 지역마다 많은 문화원이 생기고 있지만 근래 활발하게 문화원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곳이 바로 부산이다. 대도시이면서도 나름의 정취와 색을 갖는 부산. 바다 내음 가득한 그 도시에 이 백스물여덟 번째 문화원이 생겼다. 봉래산 어귀, 바다도 품고 산도 품은 영도문화원으로, 호기심을 채우러 떠나보자.

부산역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를 벗어나자마자 익숙한 길로 들어선다. 부산에 가는 서울 촌놈(?)이라면 한번쯤 들려보는 태종대 방향이다. 오르막길을 오르더니 태종대를 오른쪽에 두고 버스는 더 힘차게 오른다. 구불구불 1차선 도로를 오르다보면 진풍경이 펼쳐진다. 건물 사이사이로 펼쳐지는 바다가 바로 그것! 산을 오르면서 바다를 보는 기분도 별미다. 부산에서 문화혜택이 그리 많지 않고 교통이 소외된 지역인 영도에 문화원이 개원했다.

영도문화예술회관의 2층에 자리 잡은 영도문화원. 아직 개원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터라 문화원 사무국은 한산하다. 연두색 의자, 영도문화원 개원 알림 현수막이 아직도 싱싱하다. 문화원 입구에서 2층 옥상에서 보는 오륙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대단한 풍경이다.

김두진 영도무화원 사무국장과 함께

문화원, 니하고 비슷할 거 같은데 니 가봐라.

“문화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웃음) 축제 하는데 좀 있었고 부산에서 풍물패 단체에 있었어요. 장구치고 북치고. 대표를 10년쯤 했는데 이제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새로운 후배들에게 맡기고 나는 새 일을 하자. 그 와중에 문화원을 만난 거에요. 요즘엔 땜빵(?)하러 한 번씩이나 가요. 여러 일을 하다가 얘기 듣기로, 문화원 니하고 비슷할 거 같은데 니 가봐라, 하시더라구요. 영도구청에서 설립과정을 거치고 개원이 2010년 11월 23일이었는데, 일주일 전인가 최종 합격이 되었어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김해문화원에서 풍물도 배우고 했어요. 밥도 사주고 그러셨는데 그 덕에 문화원은 친숙했죠.” 김두진 사무국장은 설립과정에 공채로 뽑혔다. 워낙 문화예술교육 쪽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문화원이 반가웠다고. 아무래도 문화원이 맡은 일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문화예술교육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영도문화원 회원이 60명 정도 있어요. 이사는 30명 정도 꾸려졌고. 너무 많은 회원을 가지기 보다는 회원 개개인의 문화만족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곳은 학교도 많아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강의실이 최고의 문제에요. 지하에 도서관 강의실 두 개가 다인데 그것도 칸막이로 막아둔 거라 자유롭지 못하죠. 강의실 확보가 어려운

부산항의 관문에 위치한 우리 영도는 울창한 숲과 바다, 빼어난 해안절경이 잘 어우러진 국가 명승지입니다. 태종대와 동삼동 패총 등 선사시대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로서 우리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왔습니다.

개항 이후에는 근대 조선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한편 6.25전쟁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주거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영도 문화원〉의 설립은 우리 영도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우리 고장의 자존심을 높이고 구민의 긍지를 북돋우는 모티브가 되기 위함입니다. 산과 바다가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환경, 옛 선조들의 삶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영도를 문화원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계발·보급·선양할 뿐만 아니라 향토사의 조사연구, 사료 및 문화자료의 수집·보존, 문화교류, 문화행사 개최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영도 문화원〉은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구민 모두가 주인입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원이 문화예술을 활짝 꽃피우는 산실로서 영도의 새로운 문화부흥을 선도할 핵심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영도문화원장 성 한 경

데 문화원 내 꾸리기 보다는 조금 내려와서 영도 지역의 빈 집들을 활용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많은데 처음인지라 부산 내 다른 문화원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영도는 재밌는 동네지

영도는 이야기꺼리나 소재가 많은 곳이다. 역사적인 장소도 많고 요즘 소위 뜨는 '골목길'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산복도로를 따라 골목골목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동네다. "문화예술교육연합회라고 민간단체인데 그게 2006~7년쯤에 만들어졌고 그 때 운영위원을 했었어요.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사하구에서도 문화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해운대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문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부정도 되지 않는 시대고, 우리 구에서 필요성을 느끼신 것 같다. 부산에서도 영도 사람들 단결력은 알아준다. 요 뒷산이 봉래산인데 영도 할매가 있어서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안 놔준다, 는 얘기가 있을 정도라서 이 단결력은 숙명이랄까요. (웃음) 그래서 자체적으로 문화행사도 많고 많이 모이시는 편이다."

영도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이 지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김두진 사무국장이다. 새롭게 걸음마를 시작하는 문화원이다. 걸음마가 곧 뜀박질로 변할 그 날에는 함께 뛰는 것을 기대하며 벅찬 마음을 내려놓는다.

한눈에 보는 부산 영도의 문화

지역문화예술행사

▶ 제19회 절영한마당 영도다리축제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4개가 되는 전국 유일한 지역인 영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근대사의 중심이었던 영도다리를 축제의 키워드로 선정하여 주민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

일 시 | 2011. 9월중

개최장소 | 남항대교 일원(주행사장), 영도전역

지역문화발전 기여사업

▶ 문화유적탐방

문화원 회원으로 향토문화유적을 순례, 탐구하여 조상의 슬기와 자긍심 고취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점진적인 회원 증가를 도모함. 회원의 자율적인 운영 지원(탐방지 선정, 운영계획 등)

일 시 | 2011년(연 2회)

▶ 스토리로 떠나는 절영도 투어

주민들에게 내 고장 문화와 역사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대 상** | 영도구 관내주민 **시 기** | 연간

사회교육활동 사업

▶ 문화학교 운영

올바른 문화의식이 함양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운영기간 | 2011년 3월 ~ 5월(3개월)

운영강좌 | 한문, 서예(한문, 한글), 문인화, 서양화 등

향토사 발굴,조사사업

▶ 향토사 조사/연구

선조들의 애환과 야사 등 잊혀져 가는 향토에 얽힌 사료 등을 발굴 조사하여 후세에 남길 문화유산으로 기록 보존

기 간 | 2011년중

대 상 | 영도지역 및 부산항, 피난민사 등 각종자료

방 법 | 각급 도서관 및 관련학과 연구자료 수집, 구전 야담?야사?민속?민요 및 문중 단체, 개인의 향토사 자료발굴

▶ 향토사연구 동호회 구성

각기 흩어져 활동하는 향토 동호회 회원들을 결집하여 다양한 향토사료 공유와 향토사 집필의 기반 구축

분야별 구성(야사, 야담, 민속, 민요, 지명 등)

지역전통문화 계승사업

▶ 향토문화축제 연구

관내의 각종 향토문화축제에 대하여 연구 · 분석하여 자료화하고 발전방안 도출 **시 기** | 연중

회원확충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로 구민의 참여폭 확대

기 간 | 계 속 **대 상** | 각급단체원 및 일반 구민

기금확충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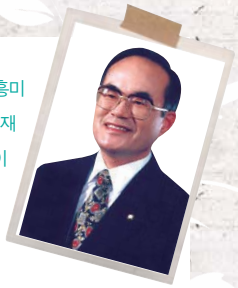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자 문화예술사업비, 운영경비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 추진

기 간 | 계 속 **대 상** |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 협찬기금 모금 등

한눈에 보는 영도문화원 설립기

2009. 10. 23	영도문화원 설립지원계획 수립
2009. 12. 30	영도문화원 지원조례 제정
2010. 12	2010년 본예산 문화원 운영구비지원금 3천만원 확보
2010. 1	영도문화원 설립추진위원 모집
2010. 4. 8	영도문화원 설립추진위원회 1차 회의 개최(위원장 선출, 운영위원 선임)
201. 4. 15	영도문화원 설립추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설립취지문(안), 정관(안), 출연금(안), 연회비 책정(안) 의결
2010. 5. 4	영도문화원 설립추진운영위원회 2차 회의 개최 - 임원 선임(안), 사업계획(안), 예산(안) 작성, 심의
201. 5. 11	영도문화원 설립추진운영위원회 3차 회의 개최 - 임원 선임(안), 사업계획(안), 예산(안) 의결, 창립총 회일자 결정
2010.6.16	영도문화원 설립추진운영위원회 3차 회의 개최 -창립총회경비지출(안) 확정
2010. 6. 29	영도문화원 창립총회
2010. 10. 5	지방문화원설립인가(제2010-34호)
2010 10. 7	법인등기
2010. 11. 23	영도문화원 개원

부산의 문화원, 형제가 접수한다!



소식을 듣는다. 영도문화원 개원소식이다. 흥미로운 소식을 뒤따라 듣는다. 바로 부산의 성재영 남구문화원장과 성한경 영도문화원장이 형제라는 사실이다! 아무래도 같은 지역이다 보니 같은 지역 원장님들끼리 사이가 좋다, 원래부터 잘 알았다, 호형호제한다, 소문까지는 들려와도 한 가족이 문화원에서 원장을 한다는 소리는 처음이다. 시간이 맞지 않아 두분을 모시고 얼마나 더 닮았는지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지만 간단히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다. 부산 남구의 성재영 원장이다.

1. 원장님의 간단한 소개를 부탁한다.

초대 부산시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각종 단체장을 두루 경험하면서 부산시민과 남구 주민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한다. 2006년, 남구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문화 축제를 만들고자 노력을 기울이던 중, 2007년 부산남구문화원 초대 원장이 되다.

2. 문화원에 관심을 갖게 되신 상황과 문화원장에 출마하시기까지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2007년 문화원 설립 전에 남구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장으로 남구의 달맞이축제와 오륙도 축제를 주관하였는데 문화원이 설립되면서 자연스럽게 축제조직위원회가 해산하였다. 주위의 적극적인 권유도 있고 남구 문화 육성에 대한 저의 큰 꿈도 실현하고자 문화원장을 맡게 되었다.

3. 영도문화원 원장님과 재미난 에피소드 없으신가? 두 분이 평소 문화원과 관련하여 나누게 되는 말씀도 좋다.

형님은 부산 영도구에서 저는 남구에서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 부산의 각종 모임과 회의 때 자주 만나 여러 문제에 대해 평소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다. 형제라 그런지 생각이 비슷하다는 걸 느낀다.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역량이 훌륭한 분이라 형님께서 영도문화원을 잘 이끌어 가시리라 믿고 있다.

4. 앞으로의 문화원 계획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해주세요.

지난 3년간 부지런히 활동한 결과 부산 지역의 여타문화원들과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문화원으로 성장하지 않았나 자체 평가를 해본다. 올해는 문화원 33개 강좌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여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갈 계획이다.어르신문화학교 '실버통기타앙상블' 이 3년차를 맞게 되는데 이제는 좋은 문화봉사공연단체의 역할을 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또 올해는 남구문화예술회와 '오륙도무용단' 이 문화원 산하 단체로 귀속됨에 따라 문화적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원 내부적인 역량 강화와 대외적으로 지역사회를 찾아가는 문화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것이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의 수준을 지난해보다 높여서 주민들과 공감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공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문화 소외 지역이 없도록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산남구문화원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지속적인 격려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2011 문화정책 대국민 업무보고 성황리 개최

영등포문화원에서 성황리 개최

지난 2월 17일 오후 2시 30분 영등포 공원 내에 위치한 '영등포문화원' 에서 개최한 '2011 문화정책 대국민 업무보고' 가 열렸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10년 활동한 경험과 지식을 문화정책에 반영할 의지를 피력했다.

문화안전망 구축, 국가문화시설의 지속 확충, 글로벌 시대의 문화적 대응능력 강화, 문화예술을 통한 창의성 제고를 올해 문화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정책' 이라는 주제 하에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되었다.

특히 보고회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지역문화기관 종사자와 결혼이주여성, 전통시장 상인, 지역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등 일반 시민들이 실제현장에서의 애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양현미 교수와 정창환씨

대국민 업무보고에 참석한 정장관은 문화원내의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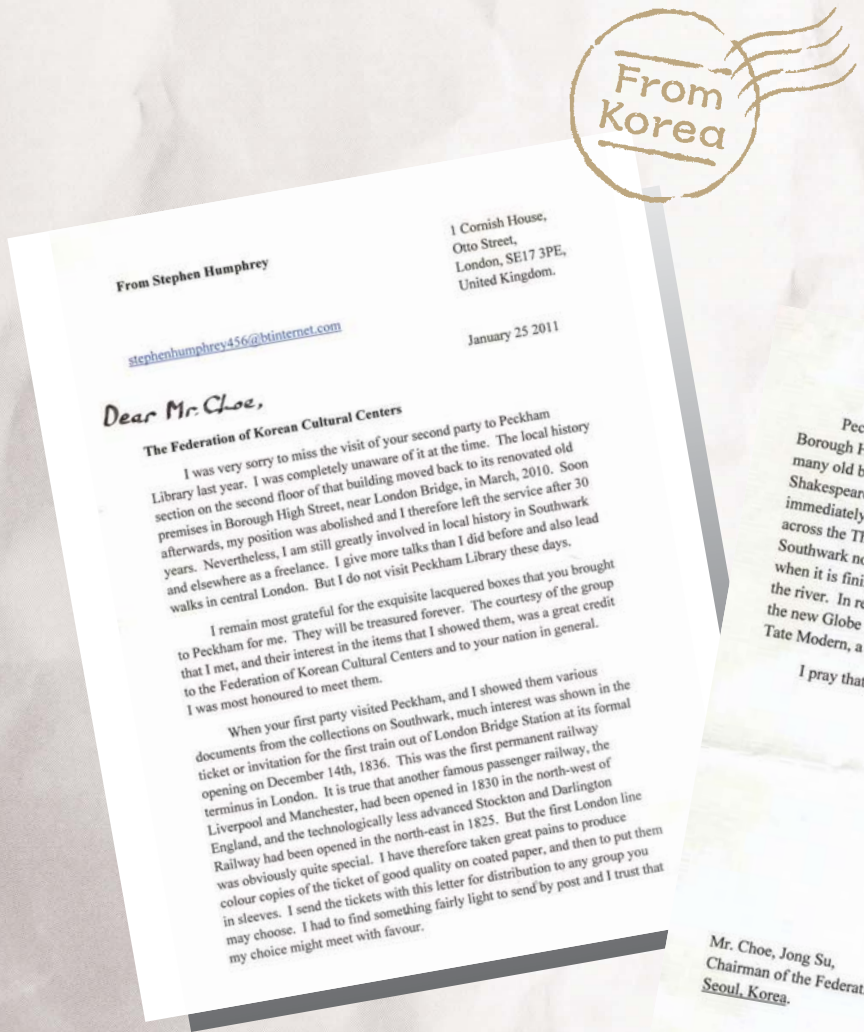
문화복지 강화 초점, 문화 · 관광 · 체육 등 바우처 수혜자 대폭 확대, 외래 관광객 1천만 명 시대 조기 달성, 시장 창출형 차세대 콘텐츠 전략 육성, G20 정상회의 성공 계기, 품격 있는 글로벌 문화 선도 국가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하여 영등포문화원 홍상기 원장과 다수의 문화기관장이 참여하였으며 연합회 관련 참석자로 어르신문화학교 동대문문화원 왕언니클럽 박화금 씨와, 평택문화원 희망 담아 찾아가는 '솟대와 장승', 다문화지역순회공연(국악뮤지컬 러브인아시아) 미하노바 아셀(2010년 러브인아시아 조연)이 함께했다.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연합회는 문화부문에서만은 소외된 이가 없도록, 지역주민의 삶이 문화를 통해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늘 지역주민 곁에서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말하며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했다. "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문화향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문화를 통해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과 보람에 찬 즐거운 인생을 살고 계신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더불어 "올해도 어르신들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어르신의 재능기부 활동 등 문화를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해지고, 삶의 활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고 다짐하였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날 마무리발언을 통해 "예술의 힘이 사회를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힘이 있지만, 잘못되면 사회를 갈등, 분열시킨다. 장관으로서 예술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했다.

페컴도서관에서 온 편지



From Stephen Humphrey

1 Cornish House,
Otto Street,
London, SE17 3PE,
United Kingdom.

stephenhumphrey456@btinternet.com

January 25 2011

Dear Mr. Choe,

The Feder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s

I was very sorry to miss the visit of your second party to Peckham Library last year. I was completely unaware of it at the time. The local history section on the second floor of that building moved back to its renovated old premises in Borough High Street, near London Bridge, in March, 2010. Soon afterwards, my position was abolished and I therefore left the service after 30 years. Nevertheless, I am still greatly involved in local history in Southwark and elsewhere as a freelance. I give more talks than I did before and also lead walks in central London. But I do not visit Peckham Library these days.

I remain most grateful for the exquisite lacquered boxes that you brought to Peckham for me. They will be treasured forever. The courtesy of the group that I met, and their interest in the items that I showed them, was a great credit to the Feder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s and to your nation in general. I was most honoured to meet them.

When your first party visited Peckham, and I showed them various documents from the collections on Southwark, much interest was shown in the ticket or invitation for the first train out of London Bridge Station at its formal opening on December 14th, 1836. This was the first permanent railway terminus in London. It is true that another famous passenger railway, the Liverpool and Manchester, had been opened in 1830 in the north-west of England, and the technologically less advanced Stockton and Darlington Railway had been opened in the north-east in 1825. But the first London line was obviously quite special. I have therefore taken great pains to produce colour copies of the ticket of good quality on coated paper, and then to put them in sleeves. I send the tickets with this letter for distribution to any group you may choose. I had to find something fairly light to send by post and I trust that my choice might meet with favour.

- 2 -

Peckham Library is a special modern building. The vicinity of the Borough High Street is by contrast the heart of ancient Southwark, and has many old buildings and sites with famous historical associations: with Chaucer, Shakespeare and Dickens, and with many historic industries. It grew up immediately next to London Bridge, the first and until 1750 the only bridge across the Thames in London. Despite all this history, the old quarter of Southwark now boasts the Shard, which will be the tallest skyscraper in Europe when it is finished, and also City Hall, which is a striking modern building by the river. In recent years also, in the cultural field, it has become the home of the new Globe Theatre – a recreation of Shakespeare's famous building – and of Tate Modern, a leading gallery of modern art.

I pray that success and fulfilment will come to your cultural organisation.

I remain, Sir,
Yours Sincerely,

Stephen Humphrey

Mr. Choe, Jong Su,
Chairman of the Feder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s,
Seoul, Korea.

펨컴도서관에서 온 편지

Dear. Mr. Chee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종수 회장님께

지난 해 펨컴 도서관 두 번째 방문 때 만나지 못해 유감이다. 당시에는 방문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지역역사부분은 2010년 3월 런던 브릿지 근처의 보수된 옛 빌딩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곧 나의 직위는 해지되었고 나는 30년의 근무 후에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우스워크의 지역역사에 관계되어 있고 프리랜서로 다른 곳에도 참여하고 있다. 예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런던 중심부를 거닐 수도 있지만 펨컴 도서관에는 방문하지 않고 있다.

지난 번 선물로 준 박스를 아주 기쁘게 보관하고 있고 영원히 간직하겠다. 지난 번 방문했던 그룹의 정중함과, 내가 보여준 물건들에 대한 관심은 한국문화원연합회와 한국에 대해 신뢰를 가지게 했으며 그들을 만났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첫 번째 방문 때, 나는 여러 가지 수집품을 보여줬고, 특히 1836년 12월 14일에 개장한 런던브릿지 역의 첫 번째 기차에 대한 초대장과 티켓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었다. 이것은 첫 번째 영구정인 런던의 종착역이다. 1830년에 개통된 영국 북서부의 리버풀과 맨체스터의 다른 유명한 철로와 1825년 북동쪽에 개통된 스톡톤과 달링톤 철도가 있었지만 이들이 기술적으로 덜 선진화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첫 번째 런던라인은 명백하게 특별하다. 코팅된 종이에 좋은 질의 기차표를 칼라로 생산해 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이 편지와 함께 보낸다. 그리고 이 호의가 당신을 기쁘게 해주길 바라고 있다.

펨컴 도서관은 오래된 사우스워크 흔적의 중심과 대조적으로 보로 하이 길에 있는 특별한 현대적 전물이며 초서, 세익스피어, 디킨스 등과 관련된 많은 역사적 장소와 오래된 건물들이 주변에 함께 있으면서 런던 브릿지 근처에서 급격하게 성장했다.

이런 역사와 더불어 사우스워크의 오래된 지역들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완공되었을 당시) 샤드 강가의 현대적인 시청 건물과 함께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최근 문화 분야에서 세익스피어 시대의 유명한 건물인 뉴글로브 극장과 테이트모던, 현대미술의 선도적인 미술관들의 발상지이다. 당신의 문화조직에 성공과 행운을 빈다.

동해문화원 논골담길

묵호의 벽이 부르면 응, 하고 답하는 길

#1

묵호항은 1980년대를 정점으로 급격한 어획고 감소와 산업 구조의 변화, 동해항의 개항, 신시가지 건설로, 삶을 찾아 모여 들었던 이들은 하나 둘 떠나가고 이젠 떠나지 못한 이들과 드문드문 찾아드는 관광객들이 묵호를 채워주고 있다.

사람들은 죽어서 또는 살아서 묵호를 떠난다. 떠난 이들의 체취는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 떠난 이에게도 남아있는 이에게도 떼어내지 못하는 그늘을 드리운다.

#2

많은 이들은 지금의 묵호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 한다. 묵호의 낡은 모양새를 모두 밀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묵

호의 희망을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묵호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 먹먹해지는 이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묵호의 삶을 이겨낸 이들이 살아 있는 한 묵호는 바랜 이름이 아니다.
우리 부모님을 살리고 우리를 키워준 묵호는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자산이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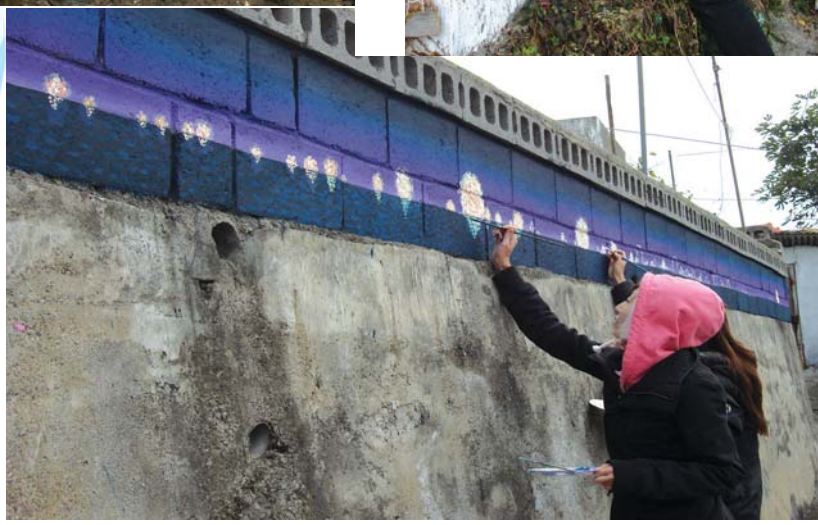
바다에서 명태, 오징어가 나면 묵호는 이웃한 강릉도 삼척도 먹여 살렸다. 명태와 오징어는 온 가족이 달려들어 어머니와 누나는 배를 가르고, 나는 나르고 삼촌은 마당 덕장 가득 널어 말렸다.
만선기 펄럭이며 묵호항에 배가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는

골길
논담

끝나지 않는다.

#4

사람들은 '삶'을 살아간다. 벽 한 켠으로 꽃이 피고, 방문 앞 오롯이 놓인 신발이 마음을 간질이고, 어디에도 없는 묵호벅스 앞 골목에서의 삶은 오늘도 현재이다.
벽의 호명(呼名)을 가만히 듣는다. 아련히 들리는 그 부름에 응, 답하고 일어선다. 이곳이 묵호다.



묵호등대담화마을의 논골담길은 지방문화원 어르신생활문화 전승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6월에서 11월 26일까지 마을어르신 30명, PM 5명, 보조PM, 지역 어르신 100여명, 어린이30명에 이르기까지 16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동해문화원이 주관한 이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에서의 생활문화 가치를 발견하고,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화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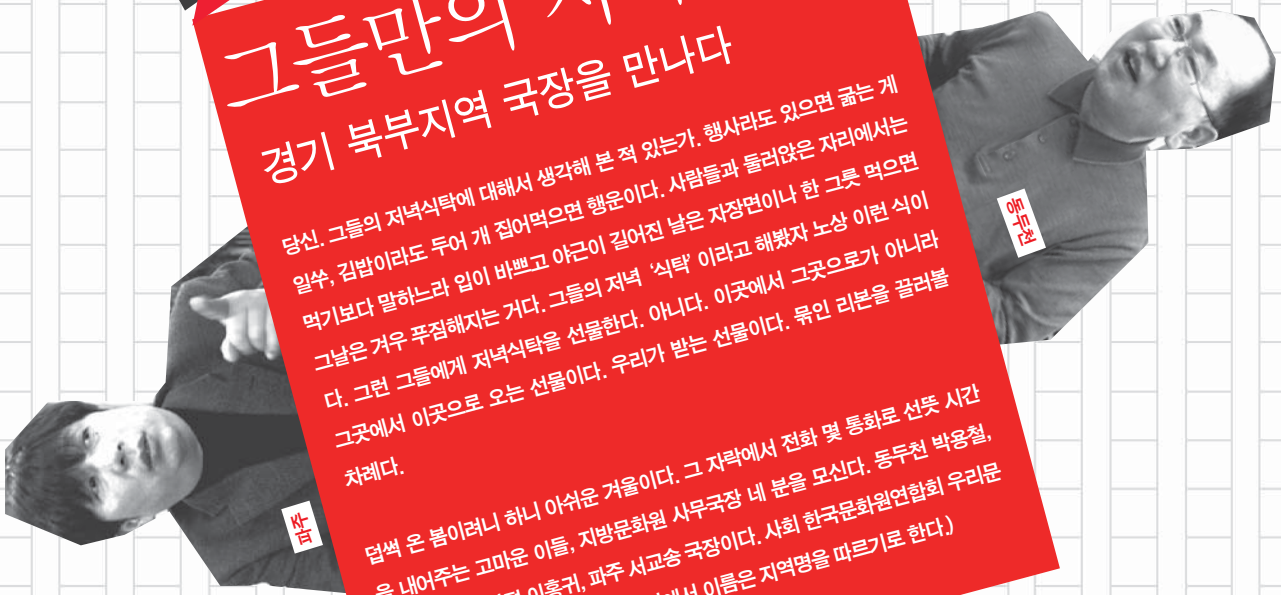
이것을 통해 어르신들의 문화 역할 만들기와 어르신들의 삶이 녹아있는 문화로 가꾸는 마을을 만들어 나갔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 골목골목 밟아나간 작은 발자욱들이 남아 묵호등대담화마을은 이렇게 만개했다. 호젓이 걸으며 둘러볼 일이다.

문의) 동해문화원 033-531-3298 http://mukho.org

그들만의 저녁식탁

경기 북부지역 국장을 만나다

당신. 그들의 저녁식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는가. 행사라도 있으면 굶는 게 일쑤, 김밥이라도 두어 개 집어먹으면 행운이다. 사람들과 둘러앉은 자리에서는 먹기보다 말하느라 입이 바쁘고 야근이 길어진 날은 자장면이나 한 그릇 먹으면 그날은 겨우 푸짐해지는 거다. 그들의 저녁 '식탁' 이라고 해봤자 노상 이런 식이다. 그런 그들에게 저녁식탁을 선물한다. 아니다. 이곳에서 그곳으로가 아니라 그곳에서 이곳으로 오는 선물이다. 우리가 받는 선물이다. 묶인 리본을 끌러볼 차례다.



덥썩 온 봄이려니 하니 아쉬운 겨울이다. 그 자락에서 전화 몇 통화로 선뜻 시간을 내어주는 고마운 이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네 분을 모신다. 동두천 박용철, 포천 김경민, 가평 이홍귀, 파주 서교송 국장이다. 사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우리문화 편집팀 문선희 (국장님들의 대화에서 이름은 지역명을 따르기로 한다.)

연합회 어느 취재보다 재미있는 자리가 될 것 같다. 일단은 먹고 있으니 더 좋다. 오늘 모임의 일등공신은 포천 김경민 국장님(이하 포천)이시다. 감사하다.
(오전에 섭외를 시작해 그날 오후에 만나기로 정해진 모임이다.)
요즘 어떠신가. 2월이라 총회도 있고 각종 공모사업도 슬슬 나오고 있다, 연합회에서도 얼마전 [1]어르신문화프로그램 공고가 나갔다.

가평 어르신문화학교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양식이 많은가. 간단히 해도 될 걸. 너무 어렵다. 일선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고였으면 한다. 그리고 이번 상위 50%에 대한 혜택에 관해 아주 아쉬운 마음이 든다.

연합회 담당자가 공고에 대한 예상 질의 문항을 다각도로 만들고 몇 번이나 검토하여 힘들게 만든 것이다. 더욱이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혜택 범위가 4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크게 염두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한다.

파주 그런데 꼭 공모사업을 해야 하나? 하는 질문에 봉착하기도 한다. 공모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 예전만 해도 타이틀 정도만 주고 우리가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내려온다.
하다못해 어떤 경우에는 강사까지 툴을 주고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왜 해야 하는가 의문이 든다. 지역의 사람들로 소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파주는 사업을 줄였다.
사업을 하면 해가 가면 갈수록 일은 많아지는데 인력지원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또한 문화원의 이름을 내세워야 하는데 사업이나 시행사는 다른 이름만 띄우는 격이 되기도 한다.

가급적이면 '문화원[2]' 이 빛나는 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 지역의 사업으로 눈을 돌린다. 정부부처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문화원의 힘을 약화시키는 지도 모르겠다.

포천 나는 사업은 꼭 해야 한다고 본다. 문화원에 온지 5년쯤 되었는데 내가 여기저기 사업 정말 많이 해봤다. 일부에서는 연합회에서 사업 어렵게 주고 정산서 힘들게 받는다고 하지만 다른 데서 내려오는 사업 한 번 해보면 안다. 연합회에서 많이 배려해주고 있는 것을. 차등지급을 한다던가 하여 문화원간 격차를 두고 지원한다고 말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문화원은 사업 이름 걸고 자리만 지키는 경우 많이 있다. 이 사업 저 사업 많이 해봐야 한다.

연합회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시다. 연합회 내에서도 많은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필요성, 전문인력양성교육[3]과 같은 연수건도 많이 논의되고 있다.

파주 어떤 면에서 연합회가 할 일이 사업을 하는 일보다 연수부분이 더 중요시될 수 있는 기능인지도 모르겠다. 유의해서 볼 일이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돈 안 들이는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 문화원을 빛낼 수 있는 사업만 하고, 자원봉사 받고. 그렇게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문화원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거다. 무작정 시에 의지하는 것보다.

연합회 문화원이 빛난다는 것은 역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칭찬받는 일 같다. 어떤가, 문화원이 워낙에 지역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 회원은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하고 계신가.

파주 안 그래도 고민이 무지 많다. 우리는 회원이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돈 안 들이는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
문화원을 빛낼 수 있는 사업만 하고,
자원봉사 받고. 그렇게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문화원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거다.
무작정 시에 의지하는 것보다.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된다. 이것을 유지하고 가야 하는 건지 아닌지. 일단은 100여분 정도로 줄여서 방향을 잡고 있다. 생각만 많다. 그러고 보면 연합회에서 이런 틀을 확고히 짜주면 좋겠다. 문화원이 제대로 설 수 있는 일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원관리도 그렇다. 무조건 많은 것이 좋은 것이냐, 고 하였을 때 꼭 그러지는 않더라. 이번에 고양도 꽤 고생한 것으로 안다.
거기는 규모가 천명이 넘는다. 연합회의 역할은 각 지방문화원이 골고루 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문화원 회원들의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왜 그런 거 안 하시나. 읍면별로 대표자를 뽑아서 운영하는 것.

동두천 우리는 동 분원이 따로 있었는데 기능이 잘 발휘가 안 되어 현재 1개동만 하나 남은 상태다.

파주 우리는 그걸 다시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 읍면별 단위로 문화원을 도와주시던 분들이 이제는

현역에서 많이 물러나셨다.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도 좋지만 충성도가 의외로 낮다. 워낙 일을 많이 하셔서 그렇다.
우리만의 하나, 그런 것이 없다, 대표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 회원도 사오백 명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관리가 잘 되냐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힘이 되느냐 지금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시급하다.

동두천 혹시 월례회 하시는 곳은 없나? 동두천은 매월 월례회를 한다. 우리는 백여 명 정도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데 물론 뭐 다 오시지는 않지만 반 정도는 나오신다. 매달 일을 치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올해 우리는 회원을 많이 영입해보려고 한다.

파주 자꾸 회원 얘기가 되어서 얘기인데 무조건 회원만 늘리는 것이 맞는가. 그건 고민해 봐야 한다. 많은 인원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알차게 꾸려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회원이라는 표현보다는 문화가족이랄지 좀더 포괄적이고 넓게 쓰면 좋겠다.

동두천 회원들 데리고 이번에는 합천[4]에 가기로 했다. 문화원간 교류, 문화단체간 교류 이거 사실 필요한데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추진 못하는 입장이다.
아무래도 예산도 그러하고 의외로 협조도 쉽지 않다. 일단 경기에서 충남 이남으로 내려가면 금액 감당이 좀 어렵다.

가평 1박2일이래도 바닷가 가서 회만 안 먹으면 돼. 그럼 얼마 안 든다.

파주 저희는 산으로 가서도 회 드시던데?

(좌중 웃음)

가평 이번 대보름행사는 구제역으로 취소가 많이 되었다. 아쉽다.

연합회 여러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문화원 오시기 전에 뭐하셨는지, 어쩌다 이렇게 힘든 곳에 오셨는지 궁금하다. 문화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알고는 계셨나.

가평 농사지었지 뭘.

(하하하)

동두천 농담이다. 나도 그렇고 가평국장님도 그렇고 공직생활을 했다. 아무래도 그래서 문화원이 어떤 단체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그래도 막상 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업 범위가 넓고 하는 일이 많다. 그런데 직원들 상황이 많이 열악하고 힘들더라.

가평 뿐만 아니다. 내가 왔을 때는 전체예산이 팔백만원인가 받아서 임대료도 못 내고 쩔쩔맸다. 그러다 또 조금 오르고. 매 빚이야 빚. 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기관의 건물에서 임대를 해서 쓰면서도 임대료를 낸 거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적용하면 안 내는데. 내라면 내고 말라면 말고 그런 때도 있었다.

파주 2001년에 문화원에 왔는데 그 때만해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젊은이들이 많았다. 그런 이유로 문화원은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늘 말한다.

연합회 문화원 식구들을 보면 대다수의 분들이 자긍심으로 이 힘든 일을 마다 않고 하신다. 그런데 가만 보면 지역에 수많은 문화단체가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지원 '2011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 공모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다.
가. 사 업 명 : 2011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나. 사업기간 : 2011년 1 ~ 12월(프로그램운영 3~11월)
다. 공모대상 : 228개 지방문화원(시도지회 제외)
라. 공모기간 : 2011년 2월 9(수) ~ 22일(화)
마. 접수마감 : 2011년 2월 22일(화) 17:00까지
바.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goldage@kccf.or.kr)
사. 기타사항 : 문의 02-704-4331~2 박성우, 이민아

2) 연합회는 1962년 전국의 78개 문화원이 연합하여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출발, 지방문화원진흥법(1994.1.7 법률 제4718호)에 의거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법인입니다. 2011년 현재 지방조직으로 광역시도에 16곳의 지회와 전국 시군구에 228곳의 지방문화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3) 연합회의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지역문화경영과정이 열리고 있다. 올해는 8월 16일~20일 예정. 그 이외에도 사무국장 원장 연수가 연중 열린다.

4) 합천은 2011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을 통해 고려대장경 간행 '천년'을 기념하고 이를 통해 대장경의 의미와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자 한다. 팔만대장경을 보유한 해인사와 합천군, 경상남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3,283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228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합천문화원에서는 각 지방문화원의 2011년 유적지답사 계획을 "대장경 천년 세계 문화축전"과 함께 하는 것을 권려하고 있다.

5) 지역문화진흥법 1994년 1월 7일 법률 4718호에 의거해 제정된 법으로 지방문화원 육성 · 발전을 위한 기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받아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병석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접수(의안번호 10304, 2010. 12. 13)하였다.

문화원이 그런 단체들과 어떤 변별력을 갖고 있을까 늘 묻게 된다. 문화기관이 많은 서울에서는 특히 약세인 경우가 많다.

포천 우리가 또 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고루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매번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우리의 기반이므로. 지역문화진흥법[5]이라는 게 지역의 문화를 진흥하자고 나라에서 만들어준 법이다. 새로 사무국장이 바뀌면서 엄청난 변화가 많았다.
나도 5년 정도의 경력인데 벌써 사무국장이 반 이상 바뀌었다.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그 사람들 우리 법령, 우리 역사, 우리 것에 대해 신념을 가져야 한다.

파주 우리가 44년 역사다. 언젠가 창립총회 문서를 보니까 행정지원업무가 그 첫 번째로 되어 있었다. 문화원이 생겨나던 당시 행정조직이 분화가 안 되어 있었고, 문화에 관한 교육이 열악하다 보니 지역의 유지랄까, 그런 깨인 분들이 자발적으로 공공의 문화복지를 위해 문화원을 설립하였던 것이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위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있었던 거다. 그래서 다른 문화단체하고는 다르다.
검증된 단체이고, 오랫동안 봉사한 앞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어느 정도 요구가 있을 수 있는 거다.

동두천 동두천만 해도 50년 되었다. 우리는 양주문화원이 61년에 생겼는데 동두천읍에 있었다. 81년에 시가 되고 동두천문화원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야 그저 봉사하고 눈에 안 보이는 일만 했다. 능력을 키웠어야 되는 거다. 새로 오는 단체들은 사업을 빼앗아 가야지만 눈에 드러나니까 은근히 경쟁구도가 된다. 그래도 우리 따라오나.
전통이 있고 이름이 있는데.

연합회 그러고 보면 연합회도 내년에 40년사를 만든다, 그런 말이 나온다. 우리가 정말 많은 문화의 선배들을 모신 셈이겠다.
다 좋다, 긍지도 좋고 신념도 좋다. 그렇지만 재미가 없다면 이렇게 즐거운 표정이 되실 수 없을 것 같다. 어떠하신가, 재미는?

포천 우리도 일단 직장 생활을 여기저기 많이 해보았다. 문화원의 일 물론 재미있다. 그것보다도 여기서 일을 하는 게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든다.
지역에서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보람되다. 맨날 보수 얘기야 계속 되는 얘기니 그것은 그만 두겠다. 보수는 즐거운 얘기가 아니다.

파주 재미의 맥락에서 보자면 문화원 사무국장만큼 재밌는 것도 없다. 시간이 없고 힘든 걸 떠나서 내가 직장을 다녀서 일을 잘하면 오너가 좋아하겠지만 내가 문화원일을 잘하면 온 지역의 사람들이 즐거워한다.
책을 만들어도 축제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정말 재밌고 즐거운 일이다. 좋다.

동두천 실무적으로야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자긍심이 대단하다. 지역에서도 문화원이라고 하면 다른 단체와 격을 다르게 본다.

연합회 어떻게 그렇게 싫은 일도 다 좋다 하시냐. 기사용 멘트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덕분에 문화원 가족의 한 사람으로써 더욱 마음이 바빠진다.
이 재밌고 신나는 일, 여러분만 알아서야 쓰겠나. 더 빨리 뛰실 텐데 너무 멀리 도망가지 마시라. 함께 보고 즐기는 문화원 가족이면 좋겠다.

문화원 Book Book

잊혀져가는 순창의 문화1
순창문화원 발행

3년여 간의 자료조사발굴을 통해 무심히 있어 보지 못하고 지나쳐가는 순창의 문화들을 묶은 자료집이 순창문화원에서 발간되었다. 김기곤 순창문화원장은 장승 하나, 고인돌 하나, 고려장 하나하나를 유난스럽게 보고 또 보아 만들어 우리 고장 문화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발간사를 통해 밝혔다.
동네 곳곳의 문화유적을 사진과 함께 볼 수 있는 자료라 더 뜻깊고 재미있는 독서가 될 듯 하다. 순창이라고 하면 고추장만 떠올렸는데 이렇게 많은 문화유산이 있다니 순창이 새롭다. 순창에 가게 되면 한번쯤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2010년 노성의 맥
평창문화원 발행

평창의 노성의 맥이 발간되었다. 25집이다. 문화나눔봉사단의 일환인 마을문화 가꾸기 전승사업 소개, 향토사대중화사업, 아라리 이수자 양성 강사활동 등 평창문화원의 이모저모를 살필 수 있다.
고창식 평창문화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평창군의 역사문화가 글로벌화되어 전해지길 바라고 우리문화가족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충만' 하기를 바란다고 그 소회를 밝혔다. 표지로 쓰인 조선왕실의궤는 왕실의 주요의식과 행사의 준비과정 등을 상세하게 적고 그림으로 만든 문서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다.

김천의 마을과 전설
김천문화원 발행

1997년부터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송기동 사무국장의 김천 이야기가 나왔다. 김천문화원에서는 평소 고장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김천지역의 지명유래, 전설, 풍수지리에 관심을 두었으며 이의 결과물로 김천의 마을과 전설이 발행된 것이다. 송영호 김천문화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자칫 묻혀질 수도 있었던 기록이 한권의 책으로 엮어져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 드린다고 하였다. 김천의 지역 자료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볼 일이다. 단위별로 꾸려져 있어 찾아보기에도 쉽다.

서포집
남해문화원 발행

남해문화원에서 유배문학 총서 그 두 번째로 서포집을 발행하였다. 서포 김만중은1689년 남해로 유배되어 53세까지 많은 정치적 부침을 겪었던 인물이다. 이 책은 현재 임종욱 선생이 옮겼다. 원본과 해석본이 함께 있어 읽는데 무리가 없고 어려울지라도 손 가는데 두고 간혹 펼쳐보면 마음을 건드리는 울림이 있는 책이다.

설화의 고향, 중랑
중랑문화원 발행

설화한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다. 할머니가 들려주었고,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그야말로 옛날 이야기다. 지방마다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무궁할지. 물론 중랑도 만만치 않은 곳이다.

중랑의 감춰진 자연유산과 향토문화의 보존 창달의 사명감으로 이 책을 만들었다는 박신일 중랑문화원장은 이 책을 계기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발간사에서 그 포부를 밝혔다. 시인이자 동화작가, 소설가인 안재식 씨가 글을 맡았고, 삽화는 김승연 씨, 사진은 구주희 씨가 맡았다. 올컬러로 보여지는 중랑의 이야기들이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는 책이다.

자암집
남해문화원 발행

남해문화원의 유배문학총서로 임종욱 선생이 옮겼다. 자암 김구는 조선 전기 4대 서예가의 한 사람으로 인수체라는 독특한 필체를 남기기도 하였다. 지난 2010년 11월에 개관한 남해유배문학관을 계기로 남해의 유배문학의 호기을 그었으며 남해군과 남해문화원이 함께 그동안 번역되지 않은 유배문인들의 글을 작업하고 그것을 책으로 내고 있다. 앞으로 남해 뿐 아니라 유배된 문인들의 작품번역발간이 계속될 예정이다.

역사는 승리한 사람들만의 기록이라 했던가. 다만 남해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다. 남해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숨겨진 이야기들을 기대한다.

세종의 나루터
연기문화원 연기향토사연구소 발행

금강의 모습이 변화하면서 특히 금강의 나루터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이를 조사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어 문화원에서 자료를 모으고 그 토대로 만들어진 책자다. 옛사진들을 만나는 재미와 어른들의 옛날 이야기가 어렵지 않게 또 친근하게 다가온다. 할아버지가, 또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로, 연기의 색다른 나루터 이야기의 재미를 만나볼 수 있다.

문화원 돌보기

서울 동대문문화원

2010 동대문구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성황리에 개최 _가족오페라 '바퀴달린 마술피리' 800여 관객 환호

동대문문화원(원장 김영섭)은 지난 12월 23일 동대문구청 2층 다목적 강당에서 2010년도 동대문구민을 위한 송년음악회로 모짜르트 원작 가족오페라 - '바퀴달린 마술피리' 를 공연하였다.

관내주민 및 어린이등 가족관객 800여명이 관람하여 대성황을 이룬 이번 공연은 그동안 동대문문화원에서 주민들의 문화적 수준향상과 욕구충족을 위하여 가요위주의 공연을 지양하고 정통클래식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페라 전문공연단체와 함께 손잡고 제작한 것이다. 특히 이날 공연된 작품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작품을 현실과 가족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새롭게 해석하여 바퀴라는 매개를 통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각색한 작품으로 이미 전국의 크고 작은 공연장에서 수십여 차례 공연하여 많은 유료관객의 호응을 받았으며 작품 중 밤의 여왕의 아리아는 오페라 애호가가 아니더라도 이미 키메라, 조수미 등에 의해 알고 친숙함으로 박수를 받았다. 이번공연의 출연진 역시 음악대학 교수등 국내정상급 성악인들로 구성하여 수준 높은 공연은 물론 재미를 더했다는 평이다. 동대문문화원은 관내공연 환경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이같이 좋은 작품을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하였다.

동두천문화원

2010 문화학교 수료식 및 문화인의 밤개최

동두천문화원에서는 지난 2010년 12월 22일 오후 6시 동두천농협 하나로웨딩홀에서 2010 문화학교 수료식 및 문화인의 밤을 250여 동두천문화원 문화가족들이 모인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하였는데 1부 행사는 동두천문화원에서 지난 2010년 한해 동안 시행한 소요단풍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보여줌을 시작으로 하여 서예교실외 7개강좌수료생에 대한 수료증수여와 모범수료생에 대한 원장 표창장, 우수 강사에 대한 한국문화원연합회장 표창 등이 있었으며 가요교실, 일본어반, 예절반에서는 지난 1년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많은 문화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발표를 하여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곧이어 시작된 2부행사는 만찬을 들면서 진행되었는데 문화퀴즈쇼, 경품추첨, 소속별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이날 제일 인기있었던 것은 문화퀴즈쇼와 경품추첨행사였는데, 경품은 안민규원장의 드럼세탁기를 비롯한 문화원 이사 및 회원들이 50여점의 경품을 내놓아 추첨을 통하여 경품증정행사를 가졌고 문화퀴즈쇼를 통하여 문화가족들의 동두천문화재에 대하여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비춰졌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동두천문화원 소속 250여 문화가족들이 모처럼 한 장소에서 모여 회원 상호간 단합과 친목도모를 하고 2011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동해문화원

연극놀이학교 프로그램 중 앵콜 모니터링 특강 실시

동해문화원(원장 김형순)은 5일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다문화가족자녀 2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여름방학특집으로 진행한 연극놀

이학교 프로그램 중 앵콜 모니터링 특강을 실시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실시한 특강은 진흥원에서 파견된 전문 연극놀이학교 전지영 강사와 이효정 교수와 양승철 선생, 작가 등 모니터링평가와 스텝 등 5명의 평가단이 함께한 가운데 약2시간정도 다문화 이해관련 각종 움직임과 대화, 글씨기, 발표하기 등으로 소중한 한때를 보냈다. 한편 이사업은 전국의 문화원 중 경북의 문경문화원과 동해문화원 2개문화원과 도서관, 문화의집 등 10개의 기관을 선정해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결과를 책자를 발간하고 다문화관련 강사 등 인력양성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참고로 활용할 계획이다.

평택문화원

어르신들 '청계천을 접수하다!' _ '장승과 솟대' 프로그램 무료체험

지난 12월 25일 성탄절,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는 특별한 체험으로 사람들이 북적였다. 미니어처 장승과 솟대를 만드는 어르신문화학교 '장승과 솟대' 체험 프로그램 때문. '장승과 솟대'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들은 지난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어르신들이다. 2007년부터 나무로 솟대와 장승을 만들기 시작해, 이제는 나무뿐만 아니라 도자기, 클레이아트 등 다양한 소재로 창작품까지 만드는 예술가적 경지에 이르렀다.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장승' 과 '솟대' 를 다양한 세대에 전파하기 위해 시작한 '장승과 솟대 만들기' 는 이미 평택과 인근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각종 축제와 학교에 파견되어 활발한 강사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전통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이다.

올 겨울에는 평택시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 고유의 상징물인 장승과 솟대 만들기 체험을 통해 우리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서울과 수원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문화관광지에서 체험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체험학습 '떴다! 장승과 솟대' 프로그램은 지난 14일과 18일에는 서울 청계천 생태체험장에서, 25일에는 수원화성 행궁에서 3회에 걸쳐 진행됐다.

장승과 솟대 만들기를 체험한 시민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장승과 솟대를 미니어처로 만드는 것이 신기하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해주는 솟대이야기가 재미있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어르신문화 프로그램' 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평택문화원에서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 가운데 지난 1년간 진행해왔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평택문화원(원장 오용원) 서태정 학예연구사는 "젊은이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문화 프로그램의 매개역할을 어르신들이 왕성한 활동을 통해 문화 전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그 취지를 전했다. 고령화시대가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떴다! 장승과 솟대' 어르신문화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 나아가 노인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동래문화원

2011년 정기총회 개최

2011년 동래문화원 정기총회가 2월 11일 동래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정기총회는 성원주 동래문화원장, 천만호 동래구의장, 시의원, 구의원, 문화원이사 · 대의원 · 일반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래문화원 한국무용반의 화관무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2010년 사업실적보고,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였습니다.

남해문화원

2011 군민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 개최

남해문화원(원장이호균)은 2011. 1.26. 군민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를 열었다. 남해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보물섬예술단의 국악단의

가야금병창과 민요공연, 군립합창단의 가곡, 클래식과 함께 고사리 손의 연주를 감상 할 수 있는 삼동초등학교의 챔버오케스트라와 객원으로 출연한 테너와 소프라노의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의 사랑노래로 등장한 "투나잇" 을 듀엣으로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남해문화원

육군39사단 8962부대 남해대대 위문공연 및 장병장기 자랑 개최

남해문화원(원장 이호균)은 지난해 연평도 사건 및 규제역으로 인해 지친 국군장병 위문공연으로 사기진작 및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무용단의 화려하고 과감한 댄스와 함께 장병들의 장기자랑은 4박5일의 특별휴가와 상점이 부상으로 준비되어있어 중대별 치열한 경쟁으로 바이브의 '미워도 다시한번' 을 통기타연주로 열창한 장은석병장 외 2명에게 돌아갔다. 아울러 김병춘대대장은 해마다 남해문화원에서 국군장병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어 주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국군장병들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남문화원

〈2011 새 해, 천제봉행(天祭奉行) 개최〉_ 신묘년 새해 새 각오와 희망의 담소를 나누는 화합의 자리 마련

성남문화원(한춘섭 원장)은 지난 1월 1일 오전 7시 20분, 2011년 신묘년(辛卯年) 새해를 맞아, '2011 새 해, 천제봉행(天祭奉行)' 을 성남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숨가쁘게 달려온 경인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가슴 벅찬 신묘년을 맞게 되는 성남시민들의 첫 아침을 더욱 새롭게, 그리고 새 각오와 결의를 다짐하는 행사로, 시민의 화합과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축하의 장을 열었다. 식전행사로 타악 퍼포먼스 '동방의 아침' (성남시립국악단)과 신년 축시 '해맞이 하러 가자' (한춘섭 작시) 이주희 낭송이 있었다.

주행사인 100만 성남시민의 건강과 시 발전을 기원하는 행사로 천제봉행 참례자에는 이재명 시장, 장대훈 시의회 의장, 한춘섭 성남문화원 원장, 정재영 경기도의회 의원, 박형원 문화원부원장, 최만순, 방영기, 한동억 문화원이사, 안일준 문화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으며, 추운날씨에도 많은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식후행사로 '새해 메세지 낭독' 에 이어서,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대북타고' 를 치며 신묘년 새해 새 각오와 소망을 바라며 새해 희망의 담소를 나누는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

성남문화원

제10회, 성남시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개최 _ 우리 고유의 전통 풍습을 전승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 마련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지난 2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분당구청 앞 문화의 거리에서 '제10회, 성남시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시민 참가 행사로 연날리기(선착순 500명 '연' 무료 배부), 연날리기, 윷놀이, 팽이치기, 투호 놀이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부럼 박 깨기' , '소원성취 글쓰기' 등의 민속 행사, 떡치기, 엿치기 등의 다채로운 전통행사가 마련되어 많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서 끝 행사로 오후 3시부터 「판교 널다리쌍용 거 줄다리기」시연이 있었다. 성남 판교 지역에서 예로부터 매년 대보름날 지역주민들이 마을 한 가운데 있는 회나무 앞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액운을 떨쳐 버리는 행사로, 2005년 판교 신도시 개발로 중단됐다가 2009년 성남문화원이 보존회를 재정비하여 작년에 이어, 이 날 시연하게 됐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를 전승시키기 위한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판교 널다리쌍용 거 줄다리기' 를 통해 사라져가는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었던 행사로, 이재명 시장, 장대훈 시의회 의장, 고흥길 국회의원 등 내빈 및 시 · 도의원과 시민 1천여 명이 축제를 즐기는 시민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포천문화원

2011 동천장학회 장학금수여식 개최

재단법인 동천장학회(이사장 강용범) 2011년도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18일 포천유림회관 2층에서 각급기관 단체장과 학교장, 이사, 감사, 수혜장학생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관내 중.고등학교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교 진학생 7명, 고등학교 재학생 42명과 고등학교 진학생 14명 등 총 63명에게 대학교진학생 200만원, 고등학교 재학생 50만원씩 총 4천2백만원이 전달되었다. 이 자리에서 강용범 이사장은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우리지역의 인재양성 및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배움의 뜻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2004년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수혜장학생들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의 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진학과 학업을 성취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것과 훗날 지역을 빛내는 커다란 재목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동천장학회를 더욱 내실 있는 모범적인 장학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천장학회는 지난 2003년도에 고 동천 강수동 초대 이사장이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일념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금 10억원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장학회로 발전했으며 현재 2대 이사장으로 강용범 이사장이 추대되어 고인의 지역 사회봉사에 대한 숭고한 뜻을 이어 받고 있다. 동천장학회의 모든 업무는 포천문화원에서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포천문화원

"2010 다문화 어울림 여성합창단 양성교육" 수료식 개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지난 30일 수강생 및 문화원 임.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다문화 어울림 여성합창단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이주민들이 다문화 어울림 여성합창단 양성교육을 통해 한국생활과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한국생활에 자연스럽게 정착 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노래로 배우는 교육을 실시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포천문화원, 선한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주관하여 6월 3일부터 12월 말까지 우리노래 배우기, 한국문화체험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포천문화원 다문화 어울림 여성 합창단은 평강식물원 가을음악회, 포천사랑페스티발, 억새꽃축제 등 지역축제에 참가하였고,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나눔 개막식에 초청되어 이주여성과 한국 주부들이 한마음으로 합창하는 등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을 지속해 각종 행사에 참여 할 예정이다. 이날 수료식에서 이만구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한국어교육 및 문화이해교육에 참여해주신 수강생들과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본 사업은 2011년도에도 시행 예정이며 노래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이주결혼여성 및 노래를 취미생활로 배우거나 음악을 좋아하는 한국인 여성은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문의는 포천문화원(☎ 532-5015, 5055, FAX 536-1020, 홈페이지:http://www.pcmh.or.kr, e-mail:kgpc1986@yahoo.co.kr)으로 하면 된다.

강동문화원

제7기 강동문화대학 개강

강동문화원(원장 이원달)에서 주최하고 있는 제7기 강동문화대학은 4월 13일 개강 한다. 이번 7기 문화대학에서는 신영희 국악인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라는 주제로 선이 굵고 맑은 남도 소리의 진수를 보여주는 강의로 문을 연다. 정옥자 전 국사편찬위원장 · 서울대명예교수의 '조선시대 선비' 라는 주제로 우리문화발전에 커다란 폭발력이 축적된 사료를 토대로 한 강의, 지치고 힘든 우리들의 일상과 삶속에서 시적 감수성을 찾아내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가치 판단력을 높여가는 시의 힘과 문학의 세계를 유안진 시인 · 서울대 명예교수가 강의를 한다. 공개강좌로 4월 20일 우리 몸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송홍기 한림대학교 교수강의, 5월 11일 건국대학교 오성삼 교수의 '다양한 교육행정 경험과 사례를 통해 교육을 통한 우리 사회의 희망 찾기' 로 우리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며, 6월 22일 이원달 서양화가 · 문화원장은 왜 그림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강동구의 꿈꾸는 문화 네트워크 토대가 되는 문화 · 예술인과 주민 모두에게 바램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강의를 한다. 정호승 시인의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인간 근본적인 고독과 슬픔의 원형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며 항상 겸손의 자세로 잔잔한 감동을 주는 강의, 음악이론과 아름다운 가곡을 따라 부를 수도 있는 이명옥 성악가, 조선시대의 '진경산수화'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는 우리 땅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고 맛깔스럽게 풀어 해석하는 이태호 명지대 교수, 음악의 시대적 배경과 작곡가들의 생활 뒷얘기도 듣게 되는 김갑수 음악평론가, 현대미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아끼지 않는 기혜경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전통예절교육의 고전적 화두로 강영숙 예지원 원장 등 강동문화원에서만 초빙 할 수 있는 강사진. 이외에도 문화유적 답사와 미술관을 견학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제7기 문화대학은 4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14강좌로 매주 수요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열리며, 수강료는 11만원이다. 수강을 원하는 주민 누구나 4월 6일까지 선착순 80명 강동문화원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동문화원 ☎ 02-488-0386, 02-480-1359)

어르신문화소식

2011년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선정심사

2011년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접수가 지난 2월22일 마감되었다. 금년에는 어르신문화학교 등 210개의 사업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어르신문화동아리활성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다. 지난해는 170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지난해 지방문화원 사업비를 4월말에서 5월초에 교부되었는데,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두달 앞선 3월초에 집행하여 2개월 정도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금년에는 지난해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공모제도의 한계를 개선했다. 지난 2005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사업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과년도 해당문화원의 사업성과가 반영되지 않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취약했었다.

금년부터 지난해의 사업평가를 반영하여 상위 50%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지방문화원에서 이사업을 단기 · 중기 발전전략을 수립토록 하여 최소 3년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이번 심사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2월 28일 한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할 계획이다.

2011년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기획워크샵

2011년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된 문화원을 대상으로 3월 7일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기획워크샵이 있다. 이번 워크샵은 각문화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수정, 보완 등 컨설팅을 통해 사업기획단계의 질적향상과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계획되었다.

한편 이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2월 25일 2011년 사업활성화 학습집담회를 개최한다. △2011년 성과관리 계획 △컨설팅단 운영 및 교육, 컨설팅워크샵 운영방안 △스타프로그램 발굴 및 기획, 컨설팅, 홍보전략 △생활문화전승 활성화 등의 의제에 대한 집단토론회가 진행된다.

2011년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 자체설명회 개최

지난 1월 11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는 2011년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지원사업(기획공모)에 대해 우리회 자체설명회가 있었다. 이 사업이 지역내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성 때문에 자체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이사업의 컨설턴트로 활동한 이춘아 한밭문화마당 대표와 사업을 수행한 임창웅 대전대덕문화원 사무국장 등의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설명회에는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금년도 이사업 1차 심사결과 8개 지방문화원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27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2011년 어르신생활문화전승프로그램 발전방안 워크샵

지난해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기획사업으로 추진한 어르신생활문화전승 발전방안 워크샵이 1월22일 우리회 사무실에서 있었다.

지난해 사업추진 문화원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운영방안과 △금년 사업추진방향 제시 등의 주제로 6시간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워크샵에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대구동구팔공, 동해, 부안, 나주, 진도, 문경, 남해문화원 사무국장과 컨설턴트로 참여한 신동호 리서치21대표, 권순석 문화컨설팅바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제주세계예술공원 조성건 시비작품 접수마감

연합회는 창녕문화원장(이이두)이 설립한 장학회가 추진하는 제주세계예술공원 조성과 관련 2009년 임시총회(올림픽파크텔, 6월 25일)의 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국 문화원으로부터 시(詩) 작품을 모집해, 129건의 작품을 받았다. 이에 2011년 2월부로 접수를 마감하고 내용을 보내었다

▶장학회 사업내용

사 업 명 | 제주세계예술공원 조성건

기 간 | 2009. 12 ~

장 소 |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전시공간 구성 | 세계 각국 소재 탈, 화석, 광물, 조각, 수석, 시비 등 약 7,000점

전시면적 | 약 7만평 (지방문화원 시비 공원 : 약 3,000평)

접수현황 | 총 129개 (2010. 2. 14 현재)

신임 원장

서울 강북문화원장 정수인

S&J 건설대표
4대 강북문화원장

대전 중구문화원장 조성남

임기 2011.3.1~2015.2.28
전) 중도일도 편집국장, 논설실장
전)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
전) 한국문화원연합회 대전지회장
현) 중도일보 주필
현) 희망의책 대전본부 이사장

경기 광명문화원장 이영희

임기 2011.1.25~2014.1.24
전) 육군본부 부관감사실 군무원 5급
광명시 체육회 이사
사) 한민족예술단 이사장

경기 오산문화원장 임명재

임기 2011.1.27~2015.1.26
아주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오산 중앙로타리클럽 회장
재향군인회 오산시지부 부회장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자문위원장
오산문화원 부원장

경기 이천문화원장 조명호

임기 2011.1.20~2014.1.19
이천문화원 부원장, 이사
이천 로타리 클럽 회장 역임
대한적십자 이천지구 협의회장 역임
이천 윈드 오케스트라 단장 역임
이천시의회 2대, 3대 의원
현) 다산고등학교 이사
현) 수원지법 여주지원 조정위원

충북 충주문화원장 전찬덕

임기 2011. 2.15~2015. 2.14
행단연서회 회장
국전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역임
한국서예협회 충주지부장
제14대 충주문화원장(현)

전북 정읍문화원장 정창환

임기 2011. 2.18~2015. 2.18
한국미술협회정읍지부장
별정우체국중앙회 부회장

전남 나주문화원장 윤병준

임기 2011. 2. 1~2015. 1. 31
나주동부 새마을금고 감사
유기자원 비료 주식회사

경북 포항문화원장 권창호

임기 2011. 2. 5~2015. 2. 4
현) 케스토롤윤활유 대표이사
현) 선린대학 이사
현)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이사
현)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
현) 포항문화원장

제주 제주문화원장 신상범

임기 2011. 2. 1~ 2015. 2. 1
(사) 제주환경연구센터이사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제주지회장
제주도문화재위원회문화재위원

퇴임 원장

경기 광명문화원장 안병식

광명시 초대 시의원 역임
국제로타리 3690지구 총재 역임

경기 오산문화원장 오근택

오산시 약사회 회장
오산중고 총동문회 부회장

경기 이천문화원장 이상구

대한적십자사 이천장년봉사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 자문위원

전남 나주문화원장 정경진

(재) 나주시천연여색문화관 이사
나주시기자협의회 회장

제주 제주문화원장 조명철

수필가
전) 제주시 교육장

사무국장 임용

서울 노원 사무국장 **유승화**
노원구의회의원 7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영국런던대학교 객원연구원
평통사무처 총괄조정관
임용 2011. 2. 1

경기 김포 사무국장 **이명재**
금오공대 기계공학과 졸 · (주)서통
임용 2010.12.20

전북 군산 사무국장 **김삼영**
전북도청 · 원광대학병원
임용 2011.02.01

2011 다문화 지역순회공연을 함께 할 공연단 및 작품을 공모합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확산하고 이주민과 지역민의 상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2011 다문화 지역순회공연〉에 참여할 공연단(작품포함)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공모개요

공모기간 | 2011. 2. 8(화) ~ 2. 28(월)

공모대상 | 연극 · 마당극 · 뮤지컬 등 다문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과 공연단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원연합회

공연시간 | 1회 전체 60 ~ 90분 이내

공연기간 | 2011. 5 ~ 8월

선정발표 | 2011. 3월 중

※ 1차 서류심사 결과는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을 통해 2차 면접심사일 통보예정

▶ 작품내용

-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등)의 삶과 에피소드, 다문화가정의 모습을 조명
- 이주민과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공연
- 이주민의 음악과 춤 등을 가미해 지역민들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공연
- 그 외에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다문화에 대한 관점을 자연스럽게 담아낼 수 있는 참신한 공연

▶ 지원규모

- **선정단체 수** | 작품의 내용과 소요예산, 출연진 규모 등을 고려해 3개 내외 단체 선정
- **지원금액** | 1천 5백만원 ~ 최대 5천만원 이내 (5회 공연기준)

※ 지원항목

5회 이상 지역순회공연에 따른 일체 비용/선정단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논의 후 지원

※ 지원예산금액

5회 공연 총예산이며 출연료, 이동경비, 숙 · 식비, 제반시설비(조명, 음향, 무대 등)를 모두 포함한 것이며, 작품 및 공연 장소(학교, 공연장 등)에 따라 다소 조정가능 (선정된 공연의 횟수와 일정은 협의 후 추후 확정)

▶ 지원신청자격

- 공연예술전문단체(1개 단체 1개 작품만 지원)
- 최근 3년 내 공연 실적 2편 이상의 단체

※ 지원신청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2011년 국고보조금 혹은 타 공공재원으로 기 선정된 공연의 중복신청 불가
- 정부 지자체(한국방송광고공사 포함)로부터 국고 ·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 순수 공연예술 활동이 주 목적이 아닌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의 보조금 제한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에 관한 규정(훈령 제 118호) 제 15조에 해당하는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를 한 단체

▶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기준** | 공연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공연작품의 예술적 수월성,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에 의한 1차 서류심사(대본 및 영상물 등 제출서류) → 2차 면접심사(개별통보 후 진행)

▶ 지원신청서 제출방법

- **지원신청접수** | 2011. 2. 8(화) ~ 2011. 2. 28(월)

※ 지원신청 접수는 마감일 소인에 한해 유효합니다.

- **접수방법** | 신청기간 중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직접제출, 퀵서비스, 택배 등 불가)

※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한국문화원연합회 다문화 공연담당자 앞

- **제출서류**

- 2011 다문화 지역순회공연 공모신청서 6부[붙임1] (원본1부, 사본5부 제출)
- 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확인)
- 공연대본 및 시나리오 (총6부)
- 기존 공연의 경우 공연영상 제출(CD 또는 DVD)
- 최근 3년 내 단체의 공연실적 증빙자료 1부(프로그램, 홍보인쇄물, 언론보도)
- 저작권 관련 계약서 사본 1부(저작권관련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그 외 관련 자료 1부

※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반송하지 않으며, 사본은 반드시 제출기관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하여야 함

▶ 공모 관련 문의

- 한국문화원연합회 담당자(남궁선) | 전화 02-704-4611

한국문화원연합회